

건스미스 비트

1. 개요

- a. 1980년 미국, FBI와 마피아간의 갈등이 고조된 시기. 뉴욕과 뉴저지에는 신제품 마약 거래로 패권을 잡은 보르노이 패밀리가 싹을 조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르노이 패밀리는 경쟁중인 세조르노, 제네비브 패밀리를 모두 와해시키고 뉴욕 마피아계의 1인자가 되기 위한 대안을 세운다. 그것은 바로 불법 총기 개조 / 복제 / 보급을 통해 조직의 몸집을 불리는 것. 하지만 싸고 살상력있는 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총포상에 접근하여 캐스팅을 시작하였다. 한 편 그를 막아야하는 FBI는 총포상에 방문하는 보르노이 직원들을 뒤따라가 보호감시를 약속하며 범죄에 가담하지 못하게끔 부탁한다.

2. 총포상 '건스미스 비트'

- a. 뉴욕의 전설적인 총포상 J. 홀먼에게 연수를 받은 맥키넨 스프링스틴(주인공)이 열게 된 샵이다. J. 홀먼의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 한 경력이 있어 평판이 좋은 편이다.
- b. 맥키넨 스프링스틴: 이야기의 주인공. 리듬을 타며 총기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한다. 똑부러지는 성격과 일 처리로 여러모로 인기가 많다.

3. FBI

- a. 조직 범죄 전담반
 - i. 로이 콜린: 보르노이 패밀리를 견제하기 위해 뉴저지 일대의 총포상을 감시, 보호하는 것을 전담하고있는 FBI요원. 서글서글한 인상이지만 요원답게 날카로운 면모또한 가지고 있다. 최근 보르노이 패밀리의 총기난사에 의해 동료를 잃어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4. 마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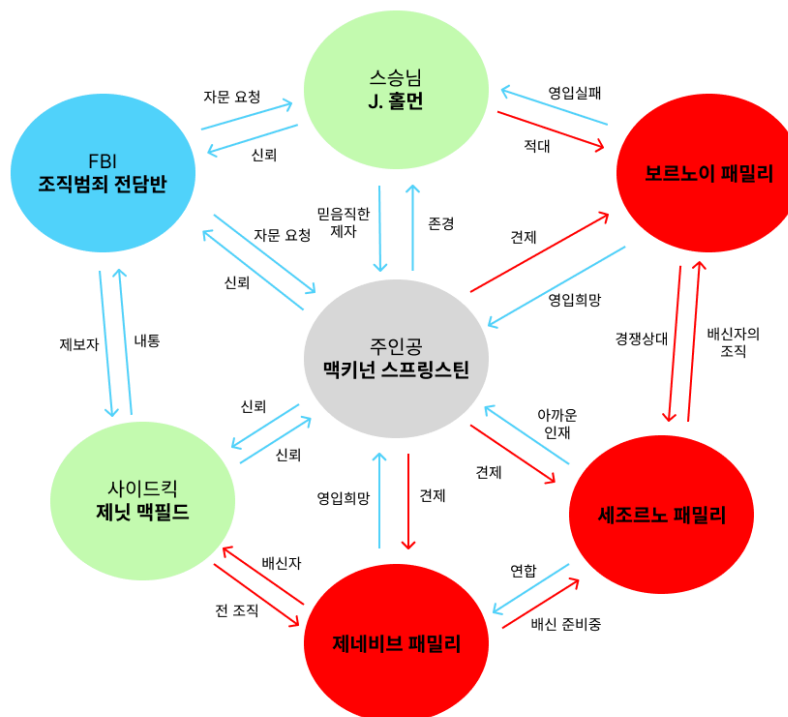
- a. 보르노이 패밀리
 - i. 값싼 마약유통으로 단숨에 떠오른 마피아 조직. 세조르노 패밀리의 간부가 변절하여 만들어졌으며, 최근 불법 총기 유통을 내세우며 조직원을 늘리고 있다. 타 마피아와 달리 잔인한 살해방법을 채택하여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총기난사와 테러를 많이 하는 편.
- b. 세조르노 패밀리
 - i. 전통적인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 무엇보다 전통과 대의를 중요시하며 배신자와 변절자를 용서하지않는다. 보스에 대한 존경심과 신의가 깊으며 가능한한 민간인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지 않는다.
- c. 제네비브 패밀리

- i. 3인 보스 체제로 돌아가는 마피아 조직. 시카고에 거점을 두고 있었지만 타 조직의 배신으로 인해 뉴욕에 도망쳐왔다.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있지만 다시 한번 재기를 꾀하고있다. 세조르노 패밀리와는 연합을 맺고 있지만 조만간 배신을 할 예정. 강도짓을 많이 하며 요즘은 불법 총기류를 눈독들이고 있다.

5. 기타 인간관계

- a. 스승님 J. 홀먼(총포상 '마제스틱 파이어암즈' 운영)
 - i. 고집이 있는 전설적인 총포상. 항상 '총기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지만 해칠 수 도 있다.' 라는 말을 한다. 자신의 일에 프라이드가 높으며, 그만큼 엄하게 사람을 굴리는 타입이다. 범죄조직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는 성격. 전형적인 FM이라고 해야할까. 현재는 은퇴를 하여 FBI에게 총기관련 자문을 하고있다.
- b. 사이드킥 제닛 맥필드
 - i. 맥키년의 친구이자 제네비브 패밀리의 전 조직원. 조직생활에 환멸을 느껴 죽음을 위장해 조직에서 탈출하였다. 맥키년에게 과거를 알리지 않았지만 마피아에 관련된 일은 모두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 FBI에게 제네비브 패밀리의 핵심 정보를 넘겨 보호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렇게나마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한다. 조직 범죄 전담반의 로이에게 주로 정보를 주고 있다.

6. 관계도 - FBI루트



7. 관계도 - 마피아 루트

